

관광객 2배 뚝 고군산 섬잇길...화장실 ‘0개’

상반기 4만9천명...전년비 104%↑
8.6km 3시간 코스 화장실 전무
말도 쉽다 음수대·매점도 없어
군산시 “내년 상반기 명도에 설치”

“방축도에서 명도를 거쳐 말도에 이르는 트레킹 코스는 보기 드물게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시간 넘게 걷는 코스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 곤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여성 탐방객들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근 고군산 섬잇길을 다녀온 탐방객 Y씨의 말이다.

방축도에서 명도와 말도로 이어지는 인도교가 완공되면서 고군산군도 섬 트레킹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크게 늘고 있다. 빼어난 해상 경관과 5개 섬을

걸어서 연결하는 이색적인 코스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화장실과 음수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관광객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2023년 선유도 방문객 248만명을 포함해 연간 약 300만 명이 찾은 전북의 대표 관광지다. 이 가운데 말도·명도·방축도 권역의 방문객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5년 상반기 약 2만4천명이었던 방문객은 올해 상반기 4만9천명으로 104% 증가했다.

현재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연간 방문객은 1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섬잇길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관련 관광 기반시설이 확충될 경우 2027년에는 15만명 안팎의 방문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다만 이는 공식 전망치가 아닌 현재 방문객 증가 추세를 토대로 한 추정치

다. 방축도에서 말도까지 이어지는 고군산 섬잇길 중주코스의 총연장은 약 8.64km다. 방축도에서 광대도·명도·보농도를 거쳐 말도로 이어지며 5개 섬과 4개의 인도교를 통과한다. 방축도 선착장을 출발해 독립문바위와 광대도, 명도, 보농도 등을 거쳐 말도등대와 말도 선착장에 도착하기까지 통상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바다 위 인도교를 걸으며 고군산군도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트레킹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편의시설이다. 8km가 넘는 코스를 3시간 이상 걸어야 하지만 트레킹 구간 중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처음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 고령 탐방객에게 화장실 부재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 트레킹을 마치는 말도 여객선 선착장 주변의 편의시설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탐방객 쉼터가 마련돼 있지만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음수대가 없고 음료를 구입할 수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도 없어 장시간 트레킹을 마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관광객 증가에 맞춰 화장실과 식수 공급시설 등 최소한의 관광 기반시설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군산시 관계자는 “화장실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가 늦어졌지만 내년 상반기 섬잇길 중간 지점인 명도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말도 여행객 쉼터의 음수대나 무인자판기 설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설치 필요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도, 낙농 로봇착유 스마트화 임실 치즈 경쟁력 키운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3년 연속 선정
국비 6억7천 확보...22억 투입
임실 낙농가 스마트시스템 구축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지역맞춤형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억 7,3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농 현장의 인력 부족과 반복적인 착유작업에 따른 노동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젖소의 건강과 생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가별 사육환경에 적합한 장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낙농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

도는 총사업비 22억 4,300만원을 투입해 임실군 낙농가 6호에 로봇착유기, 발정탐지기, TMR 배합기 등 스마트 장비와 통합제어프로그램을 연계한 스마트 착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로봇착유기는 젖소의 착유작업을 자동화하는 한편 발정탐지기와 TMR 배합기 등은 번식 상태와 사료 급여를 관리하는데 활용된다. 각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는 통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반복적인 작업 부담

을 줄이는 한편, 개체별 착유량과 발정·건강 상태, 사료 섭취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생산성과 번식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실 치즈의 원료인 원유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낙농산업과 치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농가별 사육환경과 장비 수요를 반영해 선정된 사업비 범위에서 적합한 스마트축산 모델을 마련하고, 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3년 연속 선정은 지역 축산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시·군과 농가, 관련 기업이 협력해 공모에 대응한 결과다. 도는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축산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3년 연속 선정은 축산농가의 현장문제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도와 임실군, 농가가 함께 준비한 결과”라며 “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전북 낙농의 대표 스마트축산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수도권서 고향사랑기부제·전북 답례품 홍보

전북도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에 참가해 수도권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의 대표 답례품을 홍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정읍·김제·완주·무주·장수·순

창·고창·부안 등 8개 시군과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기부 참여 방법과 세액 공제 혜택, 기부금 활용 사업 등을 안내했다. 또한 지역별 특색을 담은 답례품 전시와 시식·시음, 현장 기부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과 기부사업을 소개하고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행사와 연계해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햇 농산물 팜팡! 전북 가을맛 고향사랑기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전북도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완료한 선착순 200명이다. 가정위탁·보훈대상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9~2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

8개 시군 공동홍보관 운영

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에 참가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 대표 답례품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자 지원사업 지정기부자 150명과 일반기부자 50명으로 구분하며, 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기존 세액공제 10만 원과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외에 3만 원 상당의 추가 답례품을 제공해 최대 16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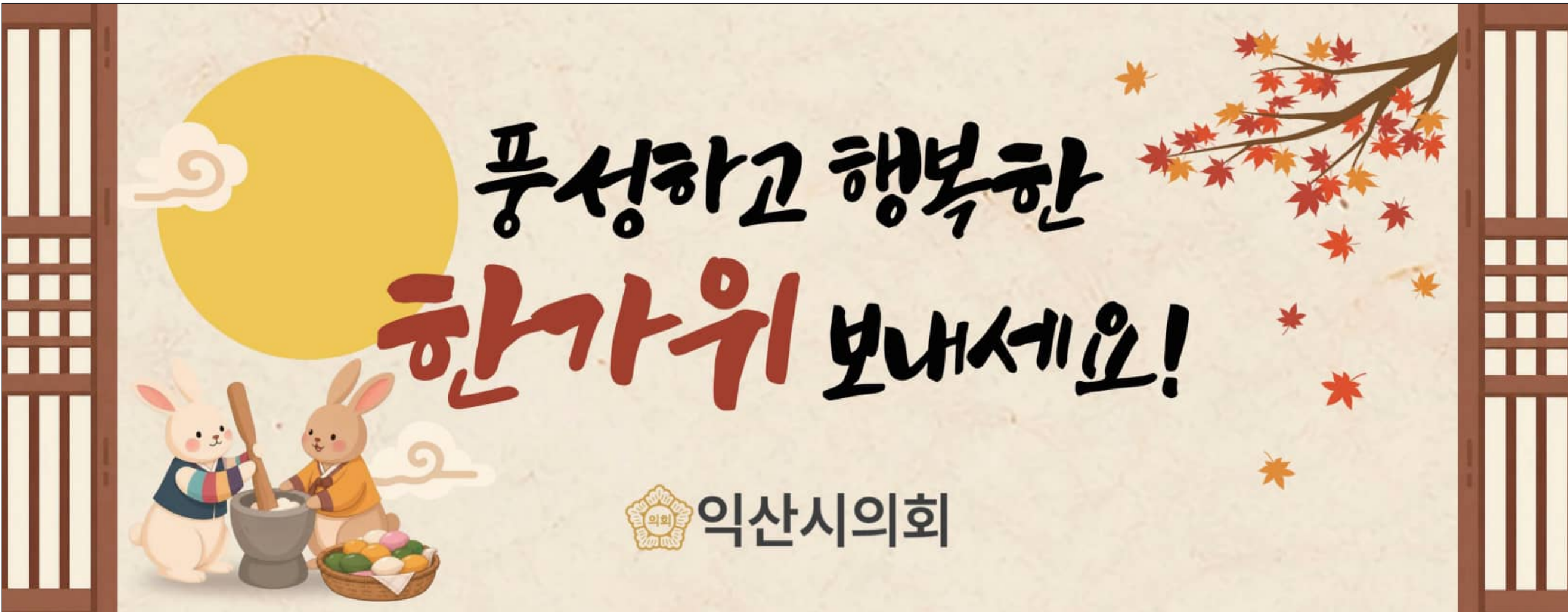
추가 답례품은 신동진 쌀(10kg), 고구마(10kg), 고춧가루(1kg) 등 햇농산물 3종과 서리태 세트, 흑돼지, 조기 세트 등 인기 답례품 3종 가운데 1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제공한다.

참여를 위해서는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와 답례품 신청을 완료하고 문자메시지(SMS) 수신에 동의해야 한다. 도는 10월 14일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 참여
'16만원 혜택' 가을 이벤트 홍보
햇농산물 등 추가 답례품 제공

정이다. 한민희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에 대해“이번 고향사랑페스타를 통해 수도권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치와 전북의 매력적인 답례품을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북을 응원하는 마음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구매,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전국 무대 출품

도지제 대회 우수사례 7건 선정
‘대상’ 용담호 수변구역 규제개선
‘최우수’ 부안 어업인 애로 해소 등
행안부 지방규제합리화 출품

전북도가 도민과 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제도개선으로 이끌어낸 우수사례를 전국 무대에 선보인다.

도는 도내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7건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 전국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평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출품 사례는 도민과 기업이 지역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과 규제기준 개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된 성

과들이다.

도는 앞서 지난 8월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등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도민 재산권 행사 제한부터 재난으로 인한 어업인 부담, 직불금 지원 사각지대, 기업 투자 제약,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공백 등 생활·경제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가 포함됐다.

대상에는 진안군의 ‘용담호 수변구역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다’가 선정됐다.

진안군은 용담댐 수변구역의 중점규제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최우수상에는 부안군의 2개 사례가

선정됐다. 재난 발생 시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 개정을 건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업종을 변경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상 사각지대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했다.

우수상에는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의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전주시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획일적인 개발규모 제한을 개선해 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했고, 군산시는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 지원과 보육서비스 이용 문제를 개선해 보육공백 완화를 지원했다.

김제시는 시비로 추진하는 농업직불금의 지급수단을 지역화폐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고창군은 지역해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양식장 수심 기준을 개선해 지주식 김

양식의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경진대회 출품을 통해 지역의 규제애로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를 전국에 공유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생활·경제·산업 분야의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협업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철규 전북자치도 자치제도과장은 “이번에 출품한 사례들은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라며 “전북의 규제혁신 성과를 전국에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김의겸 “군산, 반도체 소부장 핵심기지 도약”

정부 R&D·인력양성 등 지원
“첨단산업 균형성장 거점 될 것”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산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부가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전북(반도체·군산익산) 등 4개 지역을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특화단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공모에 11개 시·도가 제출한 16개 육성계획서를 대상으로, 소부장 집적·경쟁력 강화 효과와 기반인프라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군산·익산 지역은 PKC, OCI 등 반도체 공정용 초고순도 화학소재(세정·식각·증착용) 기업들이 기술 고도화와 증산 역량 확충에 나서, 첨단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응하는 후방 공급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군산·익산에는 2030년까지 민간투자 8,300억 원이



김의겸 의원

이뤄질 예정이며, 정부도 R&D와 기반 구축, 인력양성 등에 5년간 약 400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번 신규 특화단지에 대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규제, 정책금융 등 기업 애로사항을 중앙·지방정부가 원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산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된 것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민들께 전하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전북에서도 군산과 익산의 업체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게 됐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지 최전선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군산은 첨단 로봇파운드리와 함께 성장해 체할 수 없는 대한민국 첨단산업 핵심 생산기지이자 균형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첨단산업의 심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본사 내방

-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 오재승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

-2026년 9월 21일-

윤준병 “9대 재벌,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외면”

FTA 시장 개방으로 막대한 수출 혜택을 누린 국내 9대 재벌 대기업들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1조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출연한 반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고작 700억 원대에 그치며 무려 21배가 넘는 극심한 차별과 외면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촌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내 재계서열 상위 9대 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총액은 1조 5,102억 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9대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총액은 고작 701억 6,500만 원(다



윤준병 의원

(2017~2026년) 누적 공시 매출액 대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비율을 보면 문제는 더욱 극명해진다. 9대 대기업의 총매출액 합계(약 1경 2,286조 원) 대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비율은 평균 0.0006%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대기업의 자발적 선의에만 기대 현행 상생기금 조성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조배숙 “합계출산율 1~5위 호남, 야간 소아의료 공백 심각”

호남 달빛어린이병원 19곳에 그쳐
수도권 71곳·전체 46.4% 집중
출산율 상위 군지역 야간진료 전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호남(전남북)에는 어린이가 밤에 갈 수 있는 소아과병원이 경기도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등 소아 필수의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데이터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야간·휴일 소아 외래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수도권 출림으로 호남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호남지역 시군별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는 등 상대적으로 수도권 등에 비해 태어나는 어린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은 호남지역에서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더열악한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

고, 상위 10곳 중 8곳이 호남이었다. 시도별 출산율 역시 전남 1.09명(전국 1위), 전북 0.85명으로 서울(0.63명), 경기(0.84명)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출산율 전국 최상위를 휩쓴 영광·장성·강진·임실·함평 등 호남의 핵심 군(郡) 지역에는 야간에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1곳도 없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153개소 중 수도권이 71곳(46.4%), 서울 20, 인천 7, 경기 44곳)에 달하는 반면,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 전체는 19곳(12.4%, 광주 5, 전북 7, 전남 7곳)으로 경기도 단 1곳(44곳)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43.2%)에 그쳤

다.

그마저도 광주(5곳)와 전주, 군산, 순천 등 도내 도시권에만 편중되어 있어, 호남 내 대다수 농어촌 군 지역은 ‘야간 소아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2025년 전국 지원 예산(191억 1,000만 원) 역시 수도권이 92억 9,000만 원(48.6%)을 독식한 반면, 호남권 전체(광주·전남·전북) 배정액은 15억 5,750만 원(8.1%)으로 수도권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격차는 현행 제도가 병·의원의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가 몰려있는 수도권은 그만큼 신청할 수 있는 병·의원들이 많고, 손쉽게 지정받아 정부 지원을 챙기는 반면, 소아과가 거의 없는 호남 농어촌 지역은 신청조차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인구가 많아 병원이 집중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수도권은 반경 수 킬로미터 내에 야간 소아과와 대체 대형병원이 촘촘한

반면, 면적이 넓은 호남 등 농어촌 지역은 야간 외래 진료기관이 전무해 부모들이 한밤중에 1시간 이상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이동권의 재난’을 겪고 있다.

더욱이 군 지역에 경증 소아를 분산해 줄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다 보니 가벼운 열감기 환자까지 대학병원 응급실로 몰려들어 호남권 소아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 번아웃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저출생이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정작 전국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호남의 부모들에게 밤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며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출산율을 지켜내고 있는 호남 지역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등 호남권 심야소아의료량 확대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박지원 “추미애 민주당의 장동혁 되지 말라”

“김지용 후보자 이 정도면 된다”

박지원(전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비판한 것과 관련, “문제는 추미애 지사 제논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눈만 보시네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지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멸칭 등 사용하지 말자는 제안에 동조하신 조국 혁신원장과 유시민 작가의 공감 말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미애지사에게)민주당의 장동혁 되지 마시고 민주당의 추미애가 되어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 “행안부는 더 이상 윤석열의 용병 김지용 구하기 대변인 노릇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는 입장에서 자괴감이 든다. 한동훈을 누가 키워주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추 지사의 지적에 대해 박 의

원은 페이스북에 “저도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을 보고 ‘왜 하필 검찰 출신’을 하고 반대했지만 곧 그분의 티가 크지 않음을 알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찬성했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장모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다가 윤석열에게 쫓겨났다”며 “그때 그 시절 이런 검사라면 중수청장을 하실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귀성길 교통사고 예방법



출발 전
차량 상태 확인



졸음운전대비
적절한 휴식



규정 속도 등
교통 법규 준수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추석 전날 서울 → 전주 최대 8시간 30분”

전북권 추석 당일 54만대 ‘최다’ 이용 전망 귀성길 ‘극심한 정체’

올 추석 연휴 전북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귀성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특히 추석 전날 서울에서 전주까지 최대 8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전북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하루 평균 42만대로, 지난해보다 약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교통량은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 54만대로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귀성길 정체는 추석 전날인 24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에서 전주까지 최대 소요시간은 8시간30분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최대 5시간20분보

다 무려 3시간10분 늘어난 것이다.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 전주에서 서울까지 최대 6시간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6시간50분과 비교하면 30분 줄어든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교통 혼잡에 대비해 서해안고속도로 동서전분기점 인근 약 4km 구간에 승용차 전용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우회도로가 고속도로보다 10분 이상 빠를 경우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

회경로도 안내한다. 교통사고와 차량 고장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김제·군산요금소 등 6곳에 대형구난차를 배치하고 안전순찰차량 순찰도 강화한다. 군산휴게소 등 16개 휴게소에서는 직원 화장실 54칸을 추가 개방한다. 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출발 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장시간 운전할 경우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수협은행장 인선 2파전… 신학기 연임에 무게

총자산 70조원 돌파 비은행 사업 확대 성과 경영 연속성 부각

차기 Sh수협은행장 인선이 신학기 현 행장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의 사실상 2파전으로 압축되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경영 성과와 조직 안정성을 갖춘 신 행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는 21일 신 행장과 이 원장 등 지원자 6명을 대

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오늘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추위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 추천 위원 3명과 수협중앙회 측 위원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최종 후보가 되려면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 행장의 가장 큰 경쟁력은 검증된 실적이다.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한 뒤 리스크관리와 여신심사, 전략기획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거친 내부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재임 기간 수협은행 총자산을 사상

처음 70조원대로 끌어올렸고 연간 당기순이익도 3000억원대에 안착시켰다. 사업 다각화 성과도 뚜렷하다. 트리니티자산운용을 인수해 Sh수협자산운용을 출범시키고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는 등 은행 중심의 사업구조를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했다. 수협이 금융지주 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는 신 행장의 강점으로 평가된다. 연임에 성공하면 2016년 수협은행 독립 출범 이후 첫 연임 행장이 된다. 이 원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상임위원 등을 지낸 금융관료로 정책 경험과 대관 능력이 강점이다. 다만 FIU가 지난 3월 수협은행에 약 1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한 상황에서 FIU 수장이 해당 은행장 후보로 나선 데 대한 적절성 논란과 공직자 취업심사 문제가 변수로 남아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전환과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라는 중대 과제를 앞둔 만큼, 외부 인맥보다 이미 성과를 입증한 경영 능력과 조직 안정성이 최종 판단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준호 기자

농협 완주군지부·용진농협, 취약농가 개선 활동

고령농 노후화된 주거환경 정비 추진

농협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와 용진농협(조합장 이종진)은 지난 18일 관내 고령농 취약농가를 찾아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고령으로 인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스스로 정비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생활 불편을 덜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농업인의 생활 현장을 직접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농심천심(農心天心)’의 가치를 농촌 현장에서 실천하는 나눔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용진농협과 농협 완주군지부는 농업·

농촌을 지켜온 고령농업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농촌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진 조합장은 “평생 농업과 농촌을 지켜오신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어 뜻이 깊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의 마음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사업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천연 지부장은 “지역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농업과 함께 세심하게 살피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적극 발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 완주군지부와 용진농협은 지난 18일 관내 고령농 취약농가를 찾아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농협 완주군지부>

한편 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NH농촌 현장봉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용진농협과 농협 완주군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내 고령농과 취약농가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신협재단,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가

저상버스 탑승 예약 서비스 체험형 부스운영

신협사회공헌재단(신협재단)은 21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저상버스 탑승 예약 서비스’ 체험형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사회문제 해결 경험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가치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신협재단은 SK행복나눔재단과 실제 저상버스를 모티브로 한 체험형 부스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서비스 예약부터 승차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며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서비스의 작동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저상버스 탑승 예약 서비스’는 신협재단이 SK행복나눔재단, 대전광역시,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1일부터 오늘까지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저상버스 탑승 예약 서비스’ 체험형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신협재단>

위즈온협동조합 등과 함께 추진한 ‘저상버스 탑승 예약 APP 제공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됐다. 신협재단은 사업 재원을 지원하는 한편, 대전 지역 신협 임직원들과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에 필요한 접근성 정보를 조사·수집하며 서비스 구축에 참여했다. 신협재단 관계자는 “이번 체험 부스가 휠체어 사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

의 이동권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협재단은 행사 기간 동안 프로젝트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네팔 홍수 피해 복구 성금 3,340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네팔 현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3,34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네팔 현지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 차원의 성금 기탁과 함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과 전북은행 양광영 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3,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이와 별도로 전북은행 임직원과 관계자들은 네팔의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한 자발적 모금을 통해 340만원의 성금을 추가로 마련하고 이를 NRNA(주한네팔인협회)에 전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성금이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외국인 고객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상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농진청 연구 ‘고소에’ 전기식 원료 인정

인체적용시험서 악력 증가 곤충 단백질 고부가가치 기대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이 연구해 온 식용곤충 ‘고소에’가 노화로 감소할 수 있는 근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식용곤충이 일반식품을 넘어 건강기능식품과 메디푸드 등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고소에(갈색거저리 애벌레) 가수분해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근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소에 가수분해물은 고소에 탈지 분말에 효소를 처리해 고분자 단백질을 작은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한 것이다. 기존 건조 분말의 소화·흡수와 다양한 제품 가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농진청은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50~75세 성인 44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하루 2g의 고소에 가수분해물을 섭취하도록 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결과 평균 악력은 21.4kg에서 26.8kg으로 5.4kg 증가했다. 5번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검사에 걸린 시간도 7.38초에서 6.23초로 줄어

신체 수행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퇴사두근 근력에서도 신전근과 굴곡근의 개선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고소에 가수분해물에서 지표성분 펩타이드인 ‘AAPY’를 확인하고, 이 성분이 근육세포 조절인자인 SIRT1과 Akt 경로를 활성화해 근육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고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기전도 규명했다. 농진청은 지난 2016년 고소에를 일반식품 원료로 등록한 이후 새로운 단백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근 감소 억제와 단백질 섭취 개선, 근육량 증가 가능성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기능성 원료 인정으로 고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단백질 음료와 분말, 특수의료용도 식품 등 관련 제품 개발과 상용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도 최근 강원 춘천에 연간 최대 1천 톤의 곤충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준공해 대량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김남정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은 “곤충이 일반식품에서 기능성 원료로 도약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민관 협력을 확대해 곤충 단백질의 기능성 원료화와 제품화를 추진하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익산공동초에 ‘NH교실숲’ 26호 조성

농심천심 운동 실천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21일 익산공동초등학교(교장 강보경)에 친환경 녹색교실인 ‘NH교실숲’ 제26호를 조성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협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3개시(전주·익산·군산)와 함께하는 스쿨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실숲 조성 행사에서는 교실숲 현판식을 갖고, 공기정화식물인 아라우카리아(대형식물)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파초일엽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학생들은 파초일엽 식물키트를 직접 심고 완성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흙과 식물을 가까이에서 접했다. 식물의 특징과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고 자신이 직접 심은 식물을 꾸준히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심고 가꾸는 즐

거움’을 경험했다. 식물을 담은 스미 화분은 버려진 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해 만들어졌으며, 이번 교실숲 조성으로 인해 교내에는 연간 이산화탄소 16kg 및 미세먼지 70g이 흡수되고, 산소 214kg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훈 본부장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나누는 것이 농심천심 운동의 중요한 실천”이라며 “학생들이 자연을 가까이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16일 이리동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도내 9개 초등학교 1,068명의 학생과 함께 NH교실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농심천심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대기업 농어촌상생기금, 中企상생기금의 4.6%

상생 참여 확대 장치 필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1조5000억원 이상을 출연한 반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700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삼성·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 등 전체 상위 9개 기업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총 1조510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다년협약 잔액을 포함해 701억6500만원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4.6% 수준에 머물렀다. 두 기금 간 출연 규모가 21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기업별 격차도 컸다. HD현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913억원을 출연한 데 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에는 20억6000만원을 출연해 44.3배의 차이를 보였다. 삼성은 각각 5909억원과 151억2500만원으로 39.1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SK도 2150억원과 81억4700만원으로 26.4배, 포스코는 1436억원과 58억2100만원으로 24.7배 차이가 났다. 9개 기업의 2017~2026년 누적 공시 매출액 약 1경2286조원과 비교하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비율은 평균 0.0006% 수준으로 분석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을 지원하고 수혜 산업과 농어업에 대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윤 의원은 “FTA 체결 당시 수출 대기업이 얻는 이익을 농어촌과 나누겠다는 취지로 기금을 만들었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미흡하다”며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을 동반성장지수나 ESG 평가 등에 실효성 있게 연계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5억 베팅’ 논란 천호성 “불법 행위 없었다”

전북교사노조
“실체 없는 선언은
면죄부 불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5억 원 베팅’ 녹취 보도와 관련해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천 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사



천호성 교육감

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돼야 한다”면서 “선거 과정과 그 이후에도 어떠한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천 교육감이 전주교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녹취에서 천 교육감은 “문자 보내고 현수막에만 1억 원이 든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5억 원이 필요하다”며 “내가 베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 댈 수 있는 돈을 대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녹취록을 토대로 천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화가 오간 경위와 함께 실제 금전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녹취를 통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생각된다”며 “이 외에 추가로 밝혀질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핵심 의혹에 대한 구체적 소명 없이 ‘불법’은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5억 발언의 진위와 비공식 소통 채널로 지목된 ‘천사랑’ 텔레그램방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 회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는 28일로 예정된 미국 출국 일정을 재검토하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주요 권한 행사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 태봉농악단, 전국 무대 ‘쾌거’

민속예술제서 ‘국무총리상’
‘공동대회장상’ 동시 수상

고창군 태봉농악단(임병대)이 ‘고창 대산 만두레 풍장굿’을 선보여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국무총리상(일반부 최우수상)과 공동대회장상(일반부 연기상, 선소리 강인식)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고창군 대산면에서 활동해온 태봉농악단은 올해로 창립 26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전북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이번 전국 무대에서도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고창농악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예술제에서 태봉농악단은 특별히 새롭게 선보인 ‘고창 대산 만두레 풍장굿’을 통해 심사위원들과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만두레 풍장굿’은 벼짓 필 무렵 마지막 세벌 김매기를 마치고 풍년을 기원하고 일꾼들의 노고를 위로

하던 대산 들녘의 굿으로 단순히 흥을 돋우기 위한 농악이 아닌 공동체의 노동악이자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이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축제이다.

이번 성과는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해 온 태봉농악단의 끈끈한 협동 덕분이다.

임병대 단장은 “우리 전통 농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통 농악과 농촌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고창농악을 대한민국 전체에 알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태봉농악단에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의 소중한 전통문화가 더욱 널리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대 교수회 ‘서울대 10개 만들기’ 평가 기준 공개 촉구

3개 대학 선별 지원 비판
공정하의 검토 요구

전북대학교 교수회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평가 기준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3개 대학에 국한된 선별 지원을 멈추고 9개 거점국립대학 전체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대 교수회는 21일 전북대 진수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구두 발표나 질의응답 절차도 없이 평가 결과를 비공개한 채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만 선정한 것은 명백한 갑갑이 심사”라며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마감된 의제기 절차를 교육부가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고 공정하게 검토해 선정 결과를 재고해야 한다”며 “3개 대학에만 5년간 각 3500억 원(연간 700억 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하라는 정책 취지에 어긋나고 새로운 지역 격차와 대학 서열화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전북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S등급 획득과 11개 기업 공동 연구소 설립 등 역량을 갖췄음에도 탈락했다”며 “9개 거점국립대 전체에 대한 균형 지원만이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기초·보육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북대 교수회,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평가 기준 공개 촉구 <사진=전북대학교>

“정부는 9개 거점국립대학이 고등교육 지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참여 역사답사 운영

‘광주의 근대와 아시아’ 진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11월 6일 시민참여 역사답사 ‘낯선 문화의 만남, 광주의 근대와 아시아’를 운영한다.

이번 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에서 만나는 문화교류의 흔적’을 주제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근대기 서양 선교문화가 남아 있는 양림역사문화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아시아 여러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다룬 전시를 관람한다. 이를 통해 다른 문화의 다양한 모습

을 이해하고,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양림역사문화마을은 광주 지역의 근대문화와 선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참가자들은 근대기 선교사들의 활동과 그들이 남긴 건물을 둘러보며, 군산 지역의 남장로교 선교 역사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답사는 오전 9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출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역사문화마을을 차례로 둘러본 뒤 오후 6시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누리집(https://museum.gunsan.go.kr/)을 참고하거나 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종길 기자

남원 옛 수지중, 임시청사·문화공간 탈바꿈

민관 전담반 1년 논의 결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았던 전북 남원의 옛 수지중학교가 면사무소 임시청사와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남원교육지원청은 21일 수지면과 폐교된 옛 수지중학교 부지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문을 닫은 수지중학교는 농산어촌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맡아온 공간이다.

폐교 이후 유휴 시설 방치를 막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남원교육지원청과 수지면, 지역주민은 민관협력 전담반(ITF)을 꾸리고

지난 1년간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지중학교 본관 일부는 수지면 임시청사로 쓰인다. 나머지 공간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예술 거점으로 꾸며진다.

단순 매각이나 폐쇄 대신 교육청과 지자체, 주민이 협력해 행정과 문화를 아우르는 상생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강양원 남원교육장은 “교육청과 지자체, 주민이 머리를 맞대 지역에 꼭 필요한 해법을 찾았다”며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공동 자산이 되도록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2026학년도 황룡체전 개최

국립군산대학교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종합운동장 등 학내 일원에서 제42대 ‘결’ 총학생회 주관으로 ‘2026학년도 황룡체전’을 열었다.

이번 체전에서는 축구, 농구, 족구, 피구, 발야구 등 구기 종목과 줄다리기, 계주 등 단체 종목에서 학과 대항전이 펼쳐졌다.

열린 경쟁 끝에 법행정경찰학부가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해양경찰학부와 미디어문학부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대학 측은 행사 기간 경기장에 응급의료서비스(EMS)를 상시 배치하고 야간 시간대까지 현장 임장지도를 실시해 부상이나 사고 없이 일정을 마무리했다.

나시우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가 안전하게 끝나 기쁘다”며



<사진=군산대학교>

“모두가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강주 총장은 “학생들이 땀 흘리며 화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스스로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열린 의정, 따뜻한 소통으로
더 나은 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모아,
군민의 행복을 실현합니다

부안군의의회
BUAN COUNTY COUNCIL



정읍시,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친선 축구대회…300여 명 함께

정읍시가 지난 20일 신대인축구장에서 '제4회 유학생·외국인근로자 친선 축구대회'를 열어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뛰고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읍다문화이주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대표 이수철)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정읍을 비롯한 전북과 광주, 충남에서 8팀이 참가했다.

선수과 심판, 진행요원, 관중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경기에는 △정읍 제우스 FC △네팔 정읍 FC △미얀마 정읍 FC △태국 정읍 FC △미얀마 광주 FC △미얀마 김제 FC △미얀마 논산 FC △베트남 광주 FC가 출전했다. 참가자들은 축구 실력을 겨루며 서로 교류하고 친선을 다졌다.

이학수 시장은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축구를 통해 우정을 쌓고 정읍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험과 문화탐방,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추석 연휴 맞아 시티투어버스 특별 증차 운행

군산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군산 시티투어버스'를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특별 증차 운행한다.

군산 시티투어버스는 고군산군도와 시간 여행마을 등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군산의 역사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생생하고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한다.

시는 명절 연휴 가족 단위 방문객 급증에 대비해, 기존 군산시외버스터미널·군산역과 근대역사박물관 출발 노선에 각각 차량 1대를 추가 투입해 이용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만 운영하던 박물관 출발 노선을 오전까지 확대 운영해 더 많은 관광객에게 의미 있는 명절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티투어버스는 군산시 문화관광 누리집 또는 전화로 통해 사전예매가 가능하며,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발권을 진행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시티투어를 통해 군산의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군산의 매력을 편안하게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 명절 대비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겨루고 성금도 전해

정읍시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한상호, 여성회장 김성순)가 지난 17일 '2026년 정읍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정읍시에 '사랑의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대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기술을 연마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한편, 서로의 기량을 격려하며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는 "대원들의 땀과 열정이 모인 자리에서 정읍시에 성금을 전달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해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대원들의 기량을 선보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소중한 성금까지 전해준 정읍시의용소방대연합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조선소, 탱커 6척 신규 확보

제이오션중공업, 올해 물량 총 10건 확보 추가 발주 문의 이어져

군산조선소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제이오션중공업이 총 6척의 탱커 신규 물량 확보에 성공했다. 제이오션중공업은 21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사와 15만 7,000톤급 원유운반선 2척과 11만 4,000톤급 원유·석유화학제품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지난 6월 11만 4,000톤급 원유·석유화학제품운반선 4척 건조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하반기 6척을 추가하며 건조 예정 물량을 총 10척으로 늘렸다.

이로써 지난 6월 HD현대중공업과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제이오션중공업은 인수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선제적 물량 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군산조선소 인수에 중추적 역할을 한 차정훈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면서 정상화는 물론 해외 선주사들의 추가 발주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제이오션중공업은 이번 수주 배경을 두고 군산조선소의 초대형 선박 건조



<사진=군산시>

능력뿐 아니라 '빠른 납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해운사는 선박을 조기에 인도받아 운항에 투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만큼, 동사가 생산 여력과 효율적인 공정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납기를 제시한 것이 수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이오션중공업은 지난 3월, 모기업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과 HD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 합의각서를 맺은 이후부터 군산조선소의 인프라와 경쟁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군산조선소에 완성선 수주잔량이 없어 납기가 빨라 선주사가 원하는 시점에 선박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체결한 두 선형 모두 HJ중공업

자체 개발한 차세대 선형으로, 특히 11만 4,000톤급 원유·석유화학제품운반선의 경우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동시에 원유와 석유제품을 선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해운사가 시장 수요에 따라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이오션중공업 관계자는 "군산조선소의 부활을 기다려 온 군산과 전북 지역 시민들의 성원과 대주주 지원에 힘입어 올해만 건조 예정 물량 10척을 확보했다"며, "RG 발급과 아드·설비 재정비, 인력 확충 등 할 일이 많지만, 군산조선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군산 “전통시장에 활력 더해” 2(題)

익산시, 추석맞이 장보기 나서

추석 대목을 앞두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름이 깊어진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익산시가 대대적인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을 '전통시장 장보기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공식사회의 솔선수범과 시민 소비 촉진을 결합한 입체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단순한 관례적 장보기 행사를 넘어, 명절 대목의 소비 온기가 골목 구석구석 퍼져나가 명절 이후에도 착한 소비 문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21일 시청 직원들과 함께 북부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 7곳을 차례로 찾아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를 직접 온누리상품권과 다이로움 카드로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이번 장보기가 상인들의 주름살을 펴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 서도 넉넉한 인심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찾아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현장 목소리 청취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1일 역전종합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행사는 김재준 군산시장이 취임 후 처음 맞는 명절에 진행한 첫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재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군산시상인연합회장 등 10여 명이 역전종합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농·수산물과 명절 성수품 등을 직접 구매했다. 장보기를 통해 구매한 물품은 군산경로식당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취임 후 처음 맞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석에는 가까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 명절의 정을 나누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의회,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관내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품 전달 및 격려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 의장단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에 앞장섰다.

김충영 의장, 소길영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신평노인복지센터, 기독교산

원, 삼정원을 차례로 방문해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에 자칫 외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장단은 시설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복지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충영 의장은 "오늘 전한 작은 정성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 여러분들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살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풍성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캐시백 혜택 ‘풍성’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최대 15% 혜택 제공

군산시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 캐시백 사업을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돌려준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지원(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에 따른 것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군산사랑상품권은 10% 할인을 적용되고 있어 여기에 5% 특별 캐시백이 더해지면 최대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번 추가 캐시백은 모바일 및 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 결제분액에 한해 적용되며, 지류형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채은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산사랑상품권의 할인 혜택에 추가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반도체 기업 유치 ‘총력’

첨단소재 생태계 조성 산학관 전문가 머리 맞대

익산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래산업 대전환 기업유치 추진단' 반도체 산업분과 전체회의를 열고, 공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과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산업 대전환 기업유치 추진단'은 민선 9기 익산시가 기존 관주도의 일방적 유치 방식을 탈피하고, 행정과 기업,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한팀으로 뭉쳐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출범시킨 민·관 합동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전북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처음 열린 민·관·학 협력 자리다.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 등 학계 전문가, 반도체·화학소재 기업 관계자, 유관기관 및 시민위원 등 분과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해법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업 기반 연계 타깃기업 발굴 △투자유치 보조

금 등 혜택 개편 △투자보조금 산정 기준 개선 △투자유치 기여자 포상금 현실화 등 4대 핵심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추진단은 동우화인켐 등 4대 앵커기업의 거러채와 협력사, 전·후방 밸류체인 기업을 전수 분석해 투자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기업별 투자 의향과 진행 단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밀착 접촉을 이어가며 맞춤형 투자 제안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장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폐공장과 유휴부지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의 투자 규모와 수요에 맞춘 맞춤형 부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범 익산시 경제산업과장은 "특화단지 지정을 마중물 삼아 산·학·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기업이 피부로 체감하는 최상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첨단 반도체 생태계를 빠르게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내장산 단풍철 안전 관리 최선

28일간 현장 대책 추진

정읍시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28일간 내장산의 교통·안전·환경을 관리하는 '2026년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6일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올해 내장산 단풍은 10월 29일경 시작해 11월 7~8일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약 3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연인원 4388명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임시 종합안내센터와 의료지원반을 운영한다. 불법 노점과 적지물, 호객행위와 부당요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쓰레기 특별수거와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원산지 표시 점

검도 실시한다. 각설이 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순환 버스 운행 질서도 관리한다.

지난해 관광객들이 제기한 교통혼잡과 안내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와 갈림길의 안내표지를 보강하고 주차장에 안내 인력을 배치한다.

정읍경찰서·정읍소방서·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와도 협력해 교통관리와 범죄 예방, 응급환자 이송, 탐방객 안전관리에 나선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원 내 차량을 통제하고 내장호주차장부터 월령교까지 무료 순환 버스를 운영한다.

이학수 시장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내장산을 찾을 수 있도록 교통·환경·위생·안전 분야의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해경, 도서지역 응급환자 신속 이송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항 선착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60대, 남)는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방축도에서 말도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인 '고군산섬잇길'을 탐방한 뒤 말도항에 도착했으나, 양쪽 다리에 심한 경련 증상을 호소하며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새만금과 출소 연안구조정을 말도항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들것을 이용해 A씨를 안전하게 연안구조정으로 이송

시키고 신치항으로 신속히 임항했다. 이후 신치항에서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A씨를 인계했다.

고군산섬잇길은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5개의 섬을 해상인도교로 연결한 약 8.9km에 달하는 트레킹 코스로, 완주까지 4~5시간이 소요된다. 가파른 경사와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구간이 반복돼 단순한 산책로로 보기에는 어렵다. 최귀영 군산해경 상황실장은 "고군산섬잇길은 상당한 체력이 요구되는 트레킹코스인 만큼 특히 고령의 방문객은 체력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노인일자리 성과 전국 ‘최우수’

익산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국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과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익산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수행기관 간 협력,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14개 수행기관과 협력해 참여

자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전문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수행기관과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사업 운영에 반영하고, 수행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와 참여자 안전관리에도 힘쓰는 등 사업의 질을 높여왔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수행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미래형 도시개발 본격화

1500억 규모 동의안 전북도의회 통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부안군은 미래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규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부안읍, 행안면 일원에 총사업비 약 1500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복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을 맡아 약 24만㎡ 규모로 추진된다.

군과 공사는 지난 2024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지난 1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고시와 3월 전복개발공

사 이사회 조건부 승인을 거쳐 사업 추진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지난 7월에는 군과 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기본협약을 토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도의회 의결까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 준비단계를 거쳐 온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새만금 개발과 기업유치 등 향후 지역의 성장에 대비한 전략적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근로자와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안을 생활권과 연계한 계획적인 도시공간 확장을 통해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함께 확충하고 새만금 배후지역으로서 부안의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주거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앞으로 202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8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9년 토지보상과 공사에 착수하고 2031년 사업 준공한다는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도의회 의결을 통해 부안의 미래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개발과 기업유치가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형 정주도시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복지사각지대 조기발굴 ‘온힘’

식생활 취약계층 발굴 ‘이동식 그랑드림’ 추진

김제시는 21일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품지원이 필요하나 건강 등의 사유로 그랑드림 사업장 방문이 곤란한 식생활 취약계층 500명을 발굴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료품꾸러미를 직접 전달하고 기초상담을 통해 필요시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하는 이동식 그랑드림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랑드림사업은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사회적 편견, 교통 불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긴급 위기가구에 생필품을 무상 지원하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생안정 복지정책이다.

시는 올초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을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매주 3회 운영중

에 있으며, 일반적인 이용절차는 이용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전체 이용자 1,839명 중에 70% 이상이 일부 등에 출력편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난 7월 최초로 250명을 대상으로 이동식 그랑드림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달 추석을 앞두고 추가로 시내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그랑드림 사업은 넓은 생활권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읍면지역의 환경을 고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및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1차 상담을 통해 공적지원체계(기초생계수급)신청 및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했다.

행정기관 추천을 활용한 비공개 전달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고령자와 거동 불편 주민의 이동 부담을 덜고, 복지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했다. 또한 단순한 물품제공을 넘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공적 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연계해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교통이 불편하거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읍면지역 이웃들에게 이번 추가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도 기본적인 먹거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전통시장 이용 ‘적극 동참’

민생안정지원금 온누리 환급 연계 행사

부안군은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안상설시장과 줄포상설시장, 곰소시장 등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공무원과 사회단체 300여명이 참여해 명절 제수용품과 농축수산물, 생

활필수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 동참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과 부안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한 장보기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했다.

또 군은 지난 16일부터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부안상설시장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해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의 알뜰한 명절 장보기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추석 명절 기간 군민

과 귀성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실공영주차장을 정비하고 무료 개방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의 발걸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안정지원금과 각종 소비촉진 행사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인플루엔자 접종 본격 시작

신속한 조기접종 당부

고창군이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대응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은 21일부터 연명별 순차적으로, 보건기관은 오는 10월 26일부터 접종에 돌입한다.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는 △9월 21일 14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시작으로 △오는 10월 6일 75세 이상 △10월 12일 70세 이상 △ 10월 15일 65세 이상 순으로

확대한다. 65세 이상 주민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며, 코로나는 △10월 12일 70세 이상 △ 10월 15일 65세 이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돼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고창군 보건소는 10월 26일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고창군민 60~64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가족, 18세 이하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가금류 사육농가

종사자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15~59세 군민도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기 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어린이 지원 대상이 14세로 넓어지고, 놓여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보건진료소 23개소까지 접종 기관을 대폭 확대했으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접종을 꼭 챙기셔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고창군은 오는 24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고창종합병원은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보건기관 11개소, 당직 병·의원 2개소, 약국 7개소가 일자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군보건소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철저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귀성객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어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 △군·보건소 홈페이지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철저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귀성객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지역 창작활동 지원

‘부안군 문화잇다’ 2차 공모

규모는 총 4,650만원으로, 최대 6명(단체)을 선정한다. 기업은 50만원 이상의 현금기부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예술인·예술단체는 여러 기업의 기부약정액을 합산해 250만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부안군 소재 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동의하는 관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기부에 참여한 기업은 재단 명의의 문화예술후원 감사패와 기부자 예우 행사에 초청되며,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부안군문화재단 홈페이지의 2차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재)부안군문화재단 예술융합팀으로 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지역 창작활동 지원

‘부안군 문화잇다’ 2차 공모

(재)부안군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예술단체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6 부안 문화예술후원 매칭지원사업 ‘부안군 문화잇다’의 2차 참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지난 14일부터 1내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재단은 1차 공모를 통해 참여 예술인·예술단체 선정을 마쳤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추가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후원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안군 문화잇다’는 기업기부금에 재단 보조금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을 연계하는 문화예술 후원사업이다. 이번 2차 공모의 지원

<사진=고창군>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흥덕향교 대성전에서 유림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져 온 유교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된다. 고창 지역 3개 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조선 18현 등 모두 2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지역 유림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제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는 단순히 옛 의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과 예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유림들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향교가 지역 유교문화 전승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전대제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향교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완주군, 국가 반도체 공급망 거점 도약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한솔케미칼 등 앵커기업 참여 8,300억 민간투자 과급효과 기대

완주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3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유희태 완주군수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익산·군산을 잇는 전북권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됐음을 알렸다.

이번 공모는 전국 11개 광역 시·도에서 16곳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앵커기업과 협력사, 연구소, 지원기관이 집적된 산업 입지를 대상으로 산업기반시설·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비 지원, 기업·대학·연구 기관 공동 기술개발, 실증설비 확충, 전문기술인력 양성, 부지 조성 및 임대료 감면, 규제 특례 등을 폭넓게 지원받게 된다.

완주군은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국비 450억 원, 지방비 25억 원, 민자 167억 원 등 총 642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연구 개발(R&D),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4대 분야로 추진한다.

앵커기업으로는 한솔케미칼을 비롯해 동우화인켐, OCI, PKC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순도 정제 기술을 갖춘 도내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완주군 소재 기업인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공정용 초고순도 과산화수소와 프리커서(전구체)를 공급하는 주요 소재 기업으로 전북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핵심 앵커기업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며, 연계기업으로는 KCC, RFsemi, 오디텍 등이 있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 산업은 완제품 제조 공장(팩 Fab)에 집중돼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핵심 화학소재는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았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 등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케미컬 국내 공급 인프라가 그만큼 중요해

졌다.

도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완주·익산·새만금을 앵커기업과 협력사, 연구기관이 집적된 소재·케미컬 산업벨트로 조성하고 국내 반도체 소재·케미컬 자립화율을 현재 20~40% 수준에서 40~6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전북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약 8,3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예정돼 있어, 완주의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과급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특화단지 지정을 발판 삼아 기업 유치부터 기술 실증, 기반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소,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등 기존 산업기반과 함께 반도체 산업이 완주군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그치지 않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차질없이 조성해 기업유치와 청년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활력 불어넣기

400여명 참여 전통시장 장보기 물가안정 캠페인·상인 애로 청취

순창군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을 돕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섰다.

군은 21일 순창전통시장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관내 30여 개 유관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곳곳을 누비며 명절 제수용품과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했다. 특히 최영일 순창군수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시장을 찾은 주민들과 명절 덕담을 나누며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군은 명절 대목을 노린 불



<사진=순창군>

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순창사랑상품권 사용 장려와 소액카드 대여 등 장보기 편의 제공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이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통시장은 군민들의 삶과 정이 담긴 소중한 터전”이라며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

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이 더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순창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지원해 군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역대 춘향들 “글로벌 춘향” 머리 맞대

춘향 앰버서더 워크숍 개최

춘향제 홍보·연계 활동 모색

남원시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역대 춘향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춘향 앰버서더 하반기 네트워킹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선 9기 남원시정의 변화와 방향을 공유하고, 하반기 춘향 앰버서더의 활동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춘향들은 그동안의 활동 경험과 남원시와 춘향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날인 18일에는 친교 활동과 공식 만찬을 통해 역대 춘향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춘향 앰버서더, 남원 CONNECT’를 주제로 상반기 활동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춘향제 홍보와 남원시 화장품 상실판매장 ‘춘향미인’ 등 남원시와 연계한 하반기 활동 방향에 대



해 의견을 나눴다.

19일에는 ‘전통의 결을 잇고, 남원의 내일을 여는 글로벌 춘향’을 주제로 역대 춘향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원의 문화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 방안을 공유하며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춘향 앰버서더들과 함께 남원의 문화와 매력을 알리고, 춘향제가 10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보조금 행정 투명성 높인다

청렴군민감사관 의견 청취

33건 청렴시책 발굴 추진

순창군은 지난 18일 최영일 순창군수 주재로 제2회 순창군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지원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렴군민감사관 12명이 참석해 제1회 간담회에서 제시된 보조금 관련 의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패취약분야인 보조금 지원 업무의 개선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군은 앞서 감사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1부서 1보조금 1청렴시책’을 추진해 33건의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보조사업 담당자 55명을 대상으로 청렴·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토크 등 보조금 행정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개선사항을 청렴군민감사관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와 함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보조금 선정과정의 투명성, 신청자에 대한 결과 안내, 보조사업 정보 접근성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제시된 의견은 향후 보조금 행정 개선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보조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선정은 공정하게, 과정은 투명하게, 안내는 친절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치매 예방·조기발견 공로 인정

지역사회 중심 관리체계 강화

순창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 지역사회 치매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치매우수프로그램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에서 순창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우수프로그램 운영 분야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역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을 비롯해 인지강화 프로

그램,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센터는 조선대학교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 조기예측검사를 추진해 치매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순 선별검사 중심에서 나아가 치매의 조기예측과 예방을 연계한 지역사회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유공기관 표창은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 치매환자와 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하반기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모집

신축 최대 2억5천만원 융자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완주군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도시민의 활기찬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단일 건물 총별 바닥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이다.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을 비롯해 농촌지역 무주택자, 완주군 농촌 지역으로 전입하려는 귀농·귀촌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저금리 융자와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

진다. 대출 한도는 신축 시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 시 최대 1억 5000만 원이며, 토지와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금리는 연 2% 수준의 고정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 초기 금융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함께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28일까지 사업 대상 토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CCTV 확충·관제 강화

7~8월 물놀이 사망사고 ‘0’

완주군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확충과 통합관제 강화를 통해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한층 촘촘히 다져 나가고 있다.

군은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관제 장비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폐쇄 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영상 관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적외선 기능 저하 등으로 번호 식별이 어려운 노후 차량 번호인식이 6곳 6대를 교체하고, 범죄 취약지역 8곳에 방범용 17대를 새로 설치했다.

앞서 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2025년 12월 관내 물놀이 관리구역 7곳에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 28대를 설치했다. 전체 21개 관리구역(고산면 6곳, 운주면 10곳, 동상면 5곳) 가운데 운주면 6곳과 동상면 1곳에 우선 도입해 물놀이 안전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졌다.

이러한 관제망 확대와 집중 관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졌다.

군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물놀이 기간 지능형 장비를 도입한 7개 구역을 중심으로 통합관제센터 집중 관제를 운영했으며, 해당 구역에서 단 한 건의 물놀이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후 장비를 꾸준히 교체하고, 특별교부세를 적극 확보해 물놀이 관리구역 내 지능형 관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을 방범용 관제 장비의 통합관제센터 연계 이전을 추진해 군 전역을 아우르는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구서도역 ‘서도마루’ 리모델링 거쳐 추석 연휴 개장

남원시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구(舊)서도역 영상촬영장 내 위치한 노후 유희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서도마루’를 전면 개방하고, 방문객을 위한 풍성한 생태녹색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도마루는 과거 역무원 숙소로 쓰이다 폐역 이후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용 공간으로 이용됐으나,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의 발길이 뜸해졌던 곳이다. 시는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유희시설활성화 지역활성화 사업을 통해 이곳을 말끔히 변신시켰다.

새롭게 문을 연 ‘서도마루’ 내부는 주민들의 소규모 모임과 관광객 휴식을 위한 쾌적한 커뮤니티·휴게공간과 더불어, 옛 서도역의 변천사와 다채로운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는 영상공간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6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사브자 사브자 철길따라 서도역)’ 주말 프로그램도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선다.

주말을 맞아 서도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소설 ‘혼불’의 배경지를 거니는 해설형 산책 프로그램인 ‘느린 피크닉 여행’을 비롯해, 철길 주변을 둘러보는 저탄소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도역만의 레트로 감성과 생태적 가치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로컬푸드 소비자 가족 농가 수학·건강 밥상 토크어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센터장 정명석)가 전북 혁신도시 소비자 가족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의 가치와 농촌의 정취를 나누는 ‘2026년 도농 교류 지원 사업-가족 단위 농촌 체험 홍보 여행(팜투어)’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센터 소속 전북삼락로컬마켓이 주관하는 도농 상생 프로그램이다. 소비자가 농산물 생산 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완주 농특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 기반을 넓히고자 마련했다.

체험 일정은 완주 로컬푸드 이해 교육을 시작으로 농가 수학 체험, 농가 식당 식사 등으로 일차게 꾸렸다.

정명석 센터장은 “소비자 가족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농가에는 판로 확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완주 로컬푸드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정읍 어가푸드, 추석 앞두고 감자탕·족발 340개 기탁

정읍시청에 400만 원 상당의 감자탕과 족발 340개를 기탁했다.

시는 기탁받은 음식을 지역 공유냉장고 7곳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영찬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처음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윤영찬 대표와 임직원 여러 분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음식은 공유냉장고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어가푸드는 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발굴된 액션그룹이다. 지역 특화 품목인 지황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상품화하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부안 주산면지사협 추석명절 송편 꾸러미 전달

부안군 주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일 추석 명절 사랑의 떡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협의체가 매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체 특화사업으로 관내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떡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협의체 위원들이 주변의 소외계층 100세대를 선정하였으며, 직접 가정방문하여 송편, 삼계탕 등으로 만든 꾸러미를 전달했다.

나용성 공공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이 조금이나마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협의체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익산 조성국 소방교, 이웃집 화재서 인명 구조

생일날 화재 목격 어르신구해

익산소방서는 팔봉119안전센터 소속 조성국 소방교(사진)가 비번 근무 날 이웃집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한 대피 유도과 초기 대응을 펼쳤다고 밝혔다.

조성국 소방교는 자신의 생일이었던 지난 20일 오후 6시 50분경, 완주군 용진읍 소재 자택 인근에서 이웃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것



을 목격했다. 당시 화염이 분출하며 화재가 최성기에 다다른 위험한 상황이었다.

현장에서는 어르신 두 분이 대야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조 소방교는 위험성을 판단하고 즉시 현장으로 접근해서 어르신들을 안전한 장소로 긴급

대피시켰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 한 분이 양팔에 2도 화상(경상)을 입었으나, 신속한 대피 조치로 추가 인명피해와 중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았다.

이어 조 소방교는 자택에 있는 고압분무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며,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화재는 이후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완전히

진화되었다.

소철환 익산소방서장은 “자신의 생일날 비번 근무 중임에도 망설임 없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선 조성국 소방교의 귀감이 되는 행동에 감사하다”라며 “화재 발생 시 무리한 자체 진화보다는 신속히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JB청년회, 다문화가정에 도배 재능 기부

남원시 송동면은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2가구를 발굴하고, 남원 JB 청년회와 연계하여 도배 재능 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남원 JB 청년회(회장 강태균)에서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한 나눔 활동으로, 청년회 회원들이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노후된 벽지를 교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도배 지원을 받은 대상자 김OO(68세)는 “집이 깨끗해지고 분위기도 밝아져서 정말 기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진균환 송동면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남원 JB 청년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신임직원 30여 명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주 평화사회복지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전개했다 <사진=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신분 알리지 않고 메도만 남기며 꾸준히 선행

16년간 쌀을 기부해온 '진안읍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손길이 올해도 이어졌다.

진안읍은 “익명의 기부자가 명절을 맞아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 쌀 10kg, 60포(198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기부자는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16년간 쌀 포대와 간단한 메도만 남기며 꾸준히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진안읍은 기부자의 따뜻한

뜻에 따라 전달받은 쌀 60포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60세대에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쌀을 받은 한 주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전현희 진안읍장은 “매년 잊지 않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주)대두식품, 군산시에 장학금 5천만원 기탁

(주)대두식품(대표이사 조성용)이 21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탁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주)대두식품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5천만 원을 지정기탁하며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단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기

탁금을 군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성장지원에 사용하여, 이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배움의 기회를 이어가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계획이다.

조성용 대표이사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다시 배움에 도전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아이들 곁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지리산낙농농협, 완주군에 우유 5천개 후원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께 전달

전북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 김재욱)이 관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21일 완주군청을 찾아 190ml 우유 5,000개를 기탁했다.

기탁된 우유는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돌봄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를 통해 각 가정으로 전해진다.

김재욱 조합장은 “신선한 우유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협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히태 완주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온정을 보내 주신 전북지리산낙농농협 조합원들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후원 물품은 노인맞춤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각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네이처스팸 익산 장애인복지시설에 온정 나눔

추석을 앞두고 익산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뜻깊은 나눔이 전해졌다.

익산시는 21일 '쥬네이처스팸(대표이사 이재관)'이 시청을 찾아 1억 4,000만 원 상당의 건강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천연진통제와 소화효소, 유산균 등으로, 지역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달돼 시설 이용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쥬네이처스팸 관계자는 “장애인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광미 익산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쥬네이처스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안전한 명절 모두 함께 지켜요!!

전기 안전



전기제품 주변 청소
문어발 사용 금지

가스안전



사용 후 밸브 잠그기
장기 외출 시 중간 밸브 잠그기

재난 안전



승강기 사용 수칙 준수
비상연락망 꼭 확인!

소방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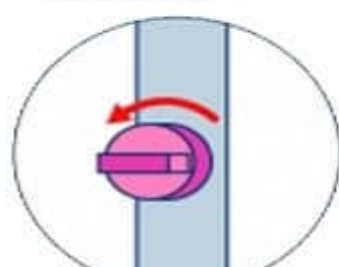


소화기 사용법 꼭 알기
피난 경로 막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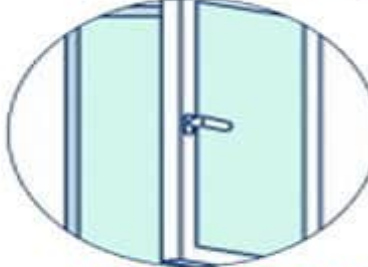
집 비우기 전 이것만은 꼭!!



전열기구 플러그



가스밸브



창문 잠금 장치



택배 보관

〈一事一言〉



문화누리카드 ‘10% 대체구매’ 의혹,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1. 구체적 제보와 특정 가맹점 지목, 철저한 진상조사가 먼저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가 이른바 ‘10% 할인 대체구매’라는 불법 수단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직 사실관계가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확보된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정 가맹점과 인근 마트까지 지목된 만큼, 완주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단순한 현장 지도 수준을 넘어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본지가 취재한 완주 삼봉지구 사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로 문구점 등에서 문구류를 결제한 것처럼 꾸민 뒤,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인근 마트에서 생필품 등을 대신 구입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변칙 거래 의혹이다.

물론 취재 과정에서 거래를 했던 이용자들이 진술을 피하거나 해당 업체 관계자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특정 가맹점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 결과 단순한 오해로 밝혀진다면 억울한 가맹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만으로도 행정기관이 결코 손을 놓고 있을 사안은 아니다.

2. 목적성 보조금의 본질과 부정사용의 위법성

문화누리카드는 일반적인 현금성 복지 지원이 아니다.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성 사업’이다. 사용할 수 있는 업종과 상품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이유다. 실제 문화누리카드 공식 지침에서도 생필품·식료품 등 비허용 상품 구매와 이를 유도하는 행위, 카드 이용자와 가맹점이 담합해 결제금액을 현금화하거나 대체 구매하는 행위를 엄격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완주군은 해당 가맹점이 가맹 등록을 마친 지난 3월 이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된 전체 금액과 월별 승인 건수를 철저히 대조해야 한다. 실제 판매한 상품과 카드 결제 내역이 일치하는지, 문구점의 매입·판매 규모와 문화누리카드 매출 사이에 비정상적인 차이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문화누리카드 총괄 기관 및 카드사와 협조해 객관적인 거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사용 정황이 확인된다면 문제는 엄중해진다. 현행 보조금 관리법 및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관리기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와 가맹점 취소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까지 주저 없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가맹점 관리 모니터링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재점검

이번 사건은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완주군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가맹점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지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경우 특정 업종으로 결제가 몰리거나 동일 금액이 반복 결제되는 등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의 절박한 현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장 생계가 팍팍한 이들에게는 문화생활보다 쌀이나 세제 같은 생필품이 더 절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의 변칙 사용을 용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살펴, 문화복지와 생계복지 사이의 사각지대를 지자체와 정부가 어떻게 메울 것인지 정책적 고민을 병행해야 한다.

국가보조금은 결코 ‘눈먼 돈’이 아니다. 지원 액수가 작다고 해서 원칙과 기준까지 가벼워질 수는 없다. 세금으로 조성된 복지재정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정직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대다수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완주군은 이번 삼봉지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복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독자투고 |

청소년 범죄예방은 훈계가 아닌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와 학교에 가득한 요즘이지만, 경찰관으로서 학교 폭력 현장과 청소년 범죄 수사의 최전선을 지키며 마주하는 현실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과거 청소년 범죄가 물리적 폭력이나 단순 탈선에 그쳤다면, 오늘날의 청소년 위험 요소는 한층 더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변모했다. 바로 사이버도박, 디지털 성폭력, 마약, 그리고 진화한 학교폭력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접근성과 죄의식의 부재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한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게임의 탈을 쓰고 아이들의 손바닥 안 스마트폰으

로 침투했으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간 갈취, 중고거래 사기, 나아가 마약 유통이나 성폭력 범죄의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 역시 장난으로 포장된 심각한 범죄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물 제작·유포 및 공유는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만 피해자들은 보복이나 수치심 때문에 선뜻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삼키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학교폭력은 교실 안을 벗어나 24시간 내내 SNS에서의 집단 따돌림과 언어 폭력으로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위와 같은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

과 처벌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백신은 바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관심이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여 주고 평소보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급격히 늘었거나, 갑자기 큰 돈을 쓰거나 반대로 돈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일 때, 혹은 이유없이 불안해하거나 등교를 거부할 때는 주의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 예방은 훈계가 아닌 신뢰에서 출발하므로 무슨일이 생겨도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어른들의 확실한 메시지가 있을 때 아이들은 비로소 벼랑 끝에서 손을 내밀 수 있다.

아이들이 사이버공간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경찰과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따뜻한 파수꾼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전주완산경찰서 경무계
경위 이인선

사설

추석 장보기 11.2% 급등, 서민 명절이 무겁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전주지역 24개 유통업체에서 23개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평균 장보기 비용은 28만4,890원으로 지난해보다 11.2% 올랐다.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에 명절을 준비해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다.

품목별 상승폭은 더욱 가파르다. 국산 도라지는 44.7%, 햇사과 29.0%, 쇠고기 산적용 21.8%, 국거리용 20.4%가 올랐다. 두부와 무, 동태포, 시금치, 햇배 등 차례상과 가족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배추와 대파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떨어졌지만 전체 장보기 비용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목할 것은 전통시장이다. 장보기 비용 자체는 24만9,031원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저렴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폭은 23.4%로 조사업체 가운데 가장 컸다.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장을 보기 위해 찾는 전통시장마저 가격 상승의 파고를 피하지 못

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추석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농축산물 물 할인 지원에 나선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물가대책은 발표한 예산이나 공급물량보다 소비자가 계산대에서 얼마나 부담을 덜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장보기 비용이 1년 만에 11.2%나 뛰었다면 현재 대책의 체감효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도 중앙정부 대책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주요 성수품 가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농축산물 직거래와 할인행사를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찾아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물가 상승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필요하다.

명절 물가는 곧 민생이다. 차례상을 간소화해도 가족이 모이는 추석 밤상까지 없앨 수는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들이 장바구니 앞에서 한숨부터 쉬지 않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의시

가을 / 강은교

가뭄을 따라갔네
작은 오두막이었네
슬픔과 돌이 살고 있었네
슬픔이 집을 비울 때는
가뭄이 집을 지킨다고 하였네
어느 하루 찬 바람 불던 날
살짝 가보았네
작은 마당에는 붉은 감 매달린 나무 한 그루
서성서성 눈물을 쏙고 있었고
뒤에 있던 산, 날개를 펴고 있었네
산이 말했네
어서 가보게, 그대의 집으로.....

시인 약력 : 1945년 함남 흥원 출생. 서울서 성장하며 경기여고와 연세대 영문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 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아대 교수를 역임했다. 1968년 ‘사상계’ 신인문학상에 ‘순례자의 잠’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1975년 제2회 ‘한국문학상’, 1992년 제37회 ‘현대문학상’, 2006년 제18회 ‘정지용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빈자일기’ ‘벽 속의 편지’ 등이 있고 시선집으로 ‘풀잎’ ‘붉은 강’ ‘허무 수첩’ 등 다수가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월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정직한 언론, 전북 타임스

전북의 힘, 정직한 언론

거짓없는 보도, 정확한 뉴스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문의 -063)282-9601

가족과 함께 떠나는 특별한 한가위

추석 연휴, 군산에서 추억 쌓다!

“군산의 대표 관광명소에서 가을을 만끽하세요”

추석 연휴가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면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여행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 바다와 섬, 자연과 미식이 어우러진 군산 여행을 추천한다.

짧지만 알차게 즐기는 원도심 시간여행부터 가을바람을 맞으며 걷는 호수공원 산책, 서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고군산군도까지,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군산의 관광명소를 소개한다.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시간여행

군산 여행의 첫 번째 추천지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근대문화도시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표 관광 명소로, 과거 무렵항으로 번성했던 군산의 모습과 근대문화자원을 다양한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박물관을 중심으로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등 주변 근대문화유산을 함께 둘러보면 군산 원도심만의 독특한 역사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경암동 철길마을, 골목마다 남아 있는 레트로 감성

추억과 낭만이 있는 여행을 원한다면 경암동 철길마을을 추천한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 사이로 철길이 이어지는 경암동 철길마을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옛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철길 주변의 작은 상점과 카페를 둘러보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특히 세대별로 서로 다른 추억과 감성을 공유할 수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

는 가족여행지로 제격이다.

■ 고군산군도, 가을 바다와 섬이 선사하는 특별한 풍경

군산을 찾았다면 서해의 아름다운 섬들이 모여 있는 고군산군도를 빼놓을 수 없다.

선유도와 장자도, 무녀도, 신시도 등 고군산군도에서는 섬마다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다. 선유도에서는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감상하고 선유스카이SUN라인을 통해 짜릿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장자도 스카이워크와 대장봉에서는 탁 트인 바다와 섬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고군산군도 곳곳을 따라 걷거나 해상 유람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섬을 바라보는 여행도 추천할 만하다. 신선한 가을바람과 푸른 서해가 어우러지는 고군산군도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다.

■ 비응마파지길, 가을 바다를 따라 걷는 힐링 여행

조용하게 가을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비응마파지길을 추천한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를 걸으며 탁 트인 바다와 수평선을 감상할 수 있는 비응마파지길은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곳이다.

특히 해 질 무렵에는 바다 너머로 지는 석양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가족 산책코스로 안성맞춤이다.

■ 은파호수공원, 가을빛 물든 호수에서 연휴 마무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는 은파호수공원에서 여유롭게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제격이다. 은파호수공원은 호수를 중심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가볍게 걸으며 가을 풍경을 즐기기에 좋은 군산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다.

가을빛으로 물든 나무와 잔잔한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을 바라보며 산책을 즐기고, 해 질 무렵 호수에 비치는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한다면 추석 연휴의 마지막까지 특별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 군산에서 즐기는 가을 미식여행
불거리뿐만 아니라 군산의 맛을 즐기는 것도 추석 연휴 군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다.

군산의 대표 먹거리인 군산짬뽕을 비롯해 해 박대 등 지역 특색이 담긴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며 관광과 미식을 함께 즐겨보는 것도 추천한다. 가족과 함께 군산의 맛집을 찾아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보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둘러보며 지역 곳곳의 활기를 느껴보는 것도 색다른 여행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

■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군산의 가을은 계속된다

추석 연휴 동안 군산의 매력을 만끽했다면, 10월에는 가을 축제를 찾아 다시 군산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먼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가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군산의 근대문화유산과 원도심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문화콘텐츠를 즐기며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대표 가을축제다.

이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군산짬뽕페스티벌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인 짬뽕을 주제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이며, 군산의 미식관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추석 연휴의 여행을 시작으로 군산시간여행축제와 군산짬뽕페스티벌까지, 올가을 군산에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맛있는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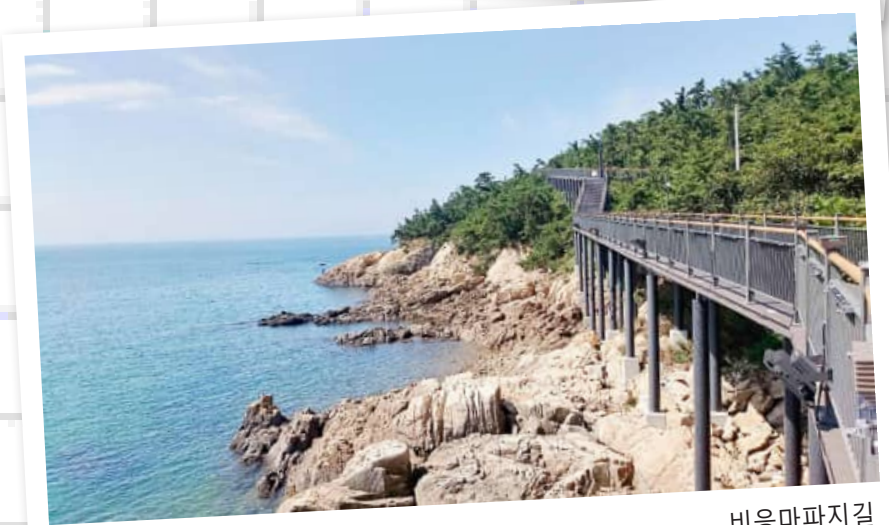
/군산=지승길 기자



경암동철길마을



고군산군도



비응마파지길



은파호수공원

"한가위 보름달의 온기가

독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전북타임스임직원일동-